

“힘들었던 촬영, 5월까지는 ‘파묘’ 온전히 느끼고 싶어”

장재현 감독, 광주독립영화관서 씨네토크 “차기작도 오컬트일 듯” ACC서 ‘파묘’ 복도씬 촬영... 10년 전 광주서 ‘검은 사제들’ 찍어

“오컬트라는 장르를 파다 보니 결국 못지않게 파헤치는 ‘파묘’까지 이어진 것 같네요. 신인감독 당시 촬영했던 ‘검은 사제들’은 오컬트 흐름의 시작인데, 10억 미만의 소규모 영화라 약간의 아쉬움도 남았죠. 이후 곧장 차기작(‘사바하’)을 집필했고 무속·종교 등에 대해 공부를 많이 하면서 ‘파묘’를 완성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지금까지 모든 작품들이 연계된 셈이죠”

지난 14일 광주독립영화관(이하 영화관)에서 열린 씨네토크 “장재현이라는 장르의 탄생”. 그곳에서 ‘파묘’로 전만 영화를 쓴 장재현 감독을 만났다. 영화관 개관 6주년을 맞아 진행된 이번 행사는 장 감독의 ‘숲’, ‘세상의 끝’, ‘12번째 보조사제’ 등 단편 영화들을 영여 자막과 함께 상영한 뒤, 그의 오컬트적 작품 세계를 들여다보는 시간이었다.

장 감독은 “10년 전 광주에서 머물며 영화 ‘검은 사제들’을 두 달 가까이 촬영했던 기억이 떠오른다”며 “그로부터 10년이 흐른 2024년에 ‘파묘’를 광주 ACC에서 촬영했고, 오늘 행사까지 자리해 감회가 깊다”고 말했다.

그에게 ‘파묘’ 다음으로 몰두하고 싶은 것이 있는지 묻자 장 감독은 “꼭 무언가를 파야 하느냐”고 웃었다. 그러면서 “‘파묘’를 완성하는 과정이 마냥 쉽지 않은 않았기에 당장 5월까지 ‘파묘’와 쉽게 이별하지

않고, 그 분위기 속에 빠져 있고 싶다”고 했다.

이어 “그래도 차기작을 구상해 본다면 아마도 전작들과 비슷한 류(오컬트)이지 않을까 싶다”며 “다른 장르에 도전하기 보다는 내가 지금까지 관심을 가져왔고, 또 관객들이 큰 사랑을 보내주는 ‘오컬트’가 팬장을 갖겠다”고 부연했다.

“극장을 나가면서 ‘엄마 잘 지내지’라고 전화하게 만드는 작품이야말로 좋은 영화인 것 같아요. 인간의 보편적 감성을 자극하는 영화 말이죠. 영웅들이 등장해서 위기를 극복하는 서사도 좋지만, 결핍이 있더라도 공감대를 자아내는 캐릭터에 애착이 가곤 합니다. ‘너무 완벽한 이’는 재미 없잖아요”

장 감독은 공포스러운 세계관을 그려내는 작품도 좋지만, ‘인간성’과 ‘보편성’에 주목하는 영화에 대한 애착도 많이 보였다.

그는 “조지프 캠벨의 ‘천의 얼굴을 가진 영웅들’이라는 책을 보면 영웅의 특징으로 ‘아픔이 있는 자’를 꼽는다”며 “이처럼 유복하기보다 상처가 있는 자야말로 ‘영웅’이라는 생각이 ‘파묘’, ‘검은 사제들’ 등에 투영된 것 같다”고 언급했다.

한편 ‘파묘’ 창작 당시의 비하인드 스토리도 들을 수 있었다. ‘검은 사제들’ 등 전작을 촬영했던 신인 시절에는 ‘감독이 모든 것을 다 해내야 한다’라는 일종의 압박이 있었지만, ‘사바하’나 ‘파묘’를 촬영



장재현 감독이 지난 14일 씨네토크를 마친 뒤 광주 일부 독자들에게 인사를 건네고 있다.

하면서 “점차 배우와 스태프들에게 기댄 면도 있다”고 덧붙였다. 수작을 완성하는 지난함이 가능되는 대목이다.

그러면서도 “‘파묘’에 영향을 준 ‘사바하’가 개봉했을 당시 영화관 맨 앞줄에서 영화를 감상했는데 진득하게 오컬트를 보는 시네필이 예상보다 많지 않았다는 사실을 느꼈다”며 “영화관을 찾는 관객들을 위해서라도 다음 작품(‘파묘’)에서는 다양한 볼거리와 즐길 수 있는 영화를 만들어야겠다는 생각을 품었다”고 덧붙였다.

기괴한 미장센과 공포, 슬픔이 가득한 ‘오컬트물’에 천착하는 데 따른 어려움은 없는지도 궁금했



광주독립영화관에서 열린 씨네토크 “장재현이라는 장르의 탄생”에서 장 감독(왼쪽)이 창작 비하인드를 관객들에게 들려주는 모습.

다. 장 감독은 “극장에 와서 ‘비극’을 느끼는 것은 긍정적인 측면이 있다”며 “비극에는 부정적인 기능 외에도 순기능이 있는데, 공포를 통해 일정 부분 카타르시스를 얻게 된다면 그것으로 의미가 있지 않을까 싶다”고 풀이했다.

그는 좋은 영화를 만들기 위해서 “자신만의 예술적 복안을 길러낼 것”을 강조했다. 확고한 취향을 토대로 다양한 경험을 쌓아나간다면 자아를 이해하는 일종의 ‘감식안’이 생길 수 있다는 것이다. “많이 연애하고, 많이 헤어져 보고, 말도 안 되는 곳에 가서 길도 잃어버려야 한다”는 말이 유독 깊이있게 다가왔다.

이날 장 감독은 늦은 시간까지 남아 영화 이야기 등을 나누고 돌아갔다. 공식적인 초청행사, 즉 ‘파묘’ 광주 GV(게스트 비짓)를 진행하지 못한 데에 대한 아쉬움과 미안함 등이 느껴졌는데 “다음번에는 꼭 광주에서 GV를 열겠다”는 답변은 향후 작품에 대한 기대감을 높였다.

“장재현의 영화”를 사랑해 주는 광주 시민들에게 인사할 수 있어서 행복합니다. 관객들의 응원과 격려를 시나리오를 쓰고 작품을 만드는 데 큰 힘이 되죠. 다음에 더 좋은 영화로 꼭 관객들을 다시 만나고 싶습니다.”

/글·사진·최류빈 기자 rubi@kwangju.co.kr



두 자매의 소리 ‘국악의 매력에 빠지다’

소리꾼 나영주·나하은
25일 빛고을국악전수관



소리꾼 나하은

Mnet ‘너의 목소리가 보여(너목보)’에 출연했던 3대 국악집단 두 자매가 들려주는 ‘국악’의 매력. 2022년 국악 아이돌로 데뷔한 소리꾼 에루화(본명 나영주)와 자매 나하은을 한 자리에서 만나는 시간.

광주 서구 빛고을국악전수관이 ‘국악의 매력에 빠지다’를 오는 25일 오후 7시 국악전수관에서 펼친다. ‘국악 아이돌’로 불리는 소리꾼 나영주와 나하은이 전통의 신명을 선사할 예정이다.

에루화는 “할머니와 엄마가 판소리를 하셔서 자연스럽게 태고부터 국악을 접하게 됐다”며 “이후 자매가 늘 함께 무대에 서면서 예술적 시너지

는 물론, 많은 위로와 영감을 주고받았다”고 말했다.

에루화·나하은 씨는 스승이자 할머니였던 김정애 소리꾼 등을 사사했다. 태생은 부산이지만 어릴 적 전남 거문도에 살면서 판소리를 배웠고, 남도 성음을 익혔던 경험이 자신만의 전통 예술세계를 구축하는 데 도움이 됐다는 설명이다.

공연은 ‘사랑가’, ‘꽃이 피고 지듯이’를 비롯해 ‘흥연’, ‘화조도’, ‘적월’, ‘상사화’ 등 국악 레퍼토리로 꾸려진다. ‘아라리’나 ‘아름다운 나라’ 등 익숙한 곡들도 올려 퍼즐 예정이다.

한편 이번으로 752회를 앞둔 ‘국악 한마당’은 국

악 대중화를 기치로 빛고을국악전수관에서 지난 2003년 5월부터 매주 목요일마다 펼쳐져 왔다. 판소리, 기악연주, 퓨전음악 및 창곡, 전통무용 등 프로그램을 선보이고 있다.

국악전수관 류효진 학예연구사는 “‘국악의 매력에 빠지다’라는 주제로 열리는 이번 공연은 ‘너목보’에 출연했던 3대 국악집단의 두 자매의 구성진 성음을 만나는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젊은 소리꾼들의 목소리에 담긴 ‘전통의 신명’이 힐링의 시간을 선사했으면 한다”고 했다.

무료 공연.

/최류빈 기자 rubi@kwangju.co.kr

아이들 클래식 입문 ‘키즈 클래식 콘서트’

광주시향 특별연주회, 5월 3~5일 광주예술의전당

아이들이 클래식에 입문할 수 있는 ‘키즈 클래식 콘서트’가 펼쳐진다. 차이콥스키, 생상스 등 흥미를 끌만한 레퍼토리로 클래식이 마냥 어렵고 지루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려주는 공연이 마련된다.

광주시립교향악단은 2024 특별연주회로 마련한 GSO키즈콘서트 ‘Flying Symphony’를 연다. 5월 3일(오후 3시), 4일(오전 11시, 오후 3시) 및 5일(오후 3시) 각각 광주예술의전당 소극장에서 진행할 예정으로 36개월 이상(2021년 5월 6일 이전 출생자) 관람 가능하다.

생상스의 ‘동물의 사육제 R.125’로 막을 연다. 원곡에서는 총 14개의 모음곡으로 구성되어 있으나, 이번 콘서트에서는 ‘숲속의 빠꾸기’와 ‘계단상 새장’을 제외한 12곡으로 관객들을 만난다. 각 모음곡마다 종결부가 있는 원곡과는 달리, 전곡을 옹니버스식으로 구성해 ‘관객들이 눈을 떼지 않도록 만든다’는 계획이다.

이어 러시아 낭만주의의 거장 차이콥스키 곡 ‘호두까기 인형 모음곡 Op.71’이 관객과 만난다. 발레 버전과는 또 다른 환상을 전달한다는 목표 아래 새롭게 구성된 이야기는, ‘꿈꾸는 듯한 상상의 세계’로 어린이들을 인도할 것으로 기대된다. 마찬가지로 각각의 모음곡을 하나의 스토



지휘자 김영연

피아니스트 정세화

리로 연결해 아이들의 집중을 유도하는 구성이다. 웅장한 오케스트라 음악을 듣는 감상의 묘미가 있다.

한편 지휘는 서울음대 작곡과를 졸업하고 독일 라이프치히 국립음대에서 지휘를 전공한 김영연이 맡는다. 건국대, 경원대, 목원대 등에서 지휘법과 건반화성 등을 강의해 왔으며 2013년부터 광주시향 부지휘자로 취임해 활동 중.

독일 한스아이슬러 국립음대 학·석사과정을 졸업한 피아니스트 김동준, 전남대 예술대 음악학과 및 독일 데트몰트 국립 음대 석사과정을 마친 피아니스트 정세화도 출연할 예정이다.

S석 2만 원, A석 1만 원.

/최류빈 기자 rubi@kwangju.co.kr

사랑의 본질과 의미를 생각하다

아트그룹 불휘광인 기획전, 19일까지 북구 자미갤러리

예술 장르에서 가장 보편적인 주제 가운데 하나가 ‘사랑’이다. 사랑만큼 많은 이들의 관심을 불러일으키는 모티브는 없다. 인류 역사 이래로 많은 사랑 이야기가 다양한 버전의 작품으로 콘텐트화됐다. 문학, 미술, 연극, 뮤지컬, 영화, 오페라 등 많은 분야에서 사랑은 끊임없이 재창조되고 있다.

청년 작가들이 ‘사랑’을 모티프로 전시를 열고 있어 눈길을 끈다.

아트그룹 불휘광인이 오는 19일까지 북구 자미갤러리에서 진행되는 ‘愛花-그저, 사랑하라’는 사랑의 본질과 사랑의 의미를 사유해볼 수 있는 시간이다.

김경룡, 김솔, 나혜스민, 류지상, 이수빈, 윤아현, 이대승, 최시울 등 모두 8명이 참여했으며, 작가들은 저마다 생각하는 사랑의 다양한 감정을 구현한 작품을 선보인다.

전시 총 기획을 맡은 오혜성 큐레이터는 “사랑만큼 우리를 완전한 존재로 견인하는 매개체는 없을 것 같다”며 “이번 전시가 서로를 이해하고 수용하며 포용하는 것의 중요성을 일깨우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고 밝혔다.

전시장에 들어서면 다양한 하트 모양의 그림들이



이대승 작 ‘사랑, 그 감정’

관객들을 맞는다. 사랑을 암시하는 하트는 보는 것만으로도 이편의 마음을 편안하게 하고 엔돌핀이 들게 한다. 사랑의 이미지가 주는 긍정적인 효과다.



김솔 외 ‘사랑더미’

이대승 작가의 ‘사랑, 그 감정’은 하늘을 휘날리는 듯한 느낌을 환기한다. 오색의 구름은 하늘을 형형색색으로 수놓고 구름 저편에서 신화 속 인물이 등장할 것 같은 분위기다. 작가는 사랑에 빠진 이의 머릿속에 그려지는 풍경을 그렸을 것이다.

8명의 작가가 참여한 설치작품 ‘사랑더미’는 하트 모양의 조형물로 이루어져 있다. 달콤한 알사탕 같기도 하고 꽃잎 모양 같기도 한 작품은 사랑이 우리를 가까이 있는 구체적 현실임을 말해주는 듯하다.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섬진강도깨비마을·월봉서원, 우리고장 국가유산 활용사업 선정

국립 섬진강 도깨비마을은 우리나라 도깨비를 모티브로 문화예술, 교육관광 등 다양한 분야를 콘텐츠화하는 취지에서 지난 2005년 설립됐다. 문화학교를 비롯해 생생문화재, 숲체험공연, 강연 등을 통해 어린이들에게는 상상의 나라를 어른들에게는 잃어버린 동심을 회복하게 하는데 주력하고 있다.

광주 광산구 월봉서원은 매년 많은 관광객들이 찾는 호남의 대표 서원 가운데 하나다. 지금까지 선비문화를 주제로 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선보여 정신문화자산의 가치와 의미를 전달해왔다. 이를 계기로 2020년 문화체육관광부 지역문화대표 브랜드 대상 수상, 한국관광공사 야간관광 100선에 선정되기도 했다.

섬진강 도깨비마을과 광산구 월봉서원이 우리고장 국가유산 활용 대표 사업 10선에 선정됐다. 문화재청은 ‘섬진강 도깨비마을’과 ‘달의 정원, 월봉서원’을 ‘우리고장 국가유산 활용사업’ 10선에 선정했다. 대표 사업들은 2025년부터 3년간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대표 사업’임을 표시하는 국가 유산 유유자적·로고도 사용할 수 있다.

문화재청 관계자는 “지난 2008년부터 뛰어난 성과가 있거나 발전가능성이 있는 사업은 우수사



도깨비마을에서 열린 도깨비잔치 장면.

<도깨비마을 제공>

업으로 선정해 시상해왔다”며 “올해부터는 지속적인 성과를 내고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대표 사업’을 선정해 목록에도 등재하고 3년간 사업운영 등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동화작가인 김성봉 섬진강 도깨비마을 대표는 “도깨비마을로 들어온 지 열주 20여 년의 시간 동안 많은 보람된 일도 있었고 어려운 부분도 있었다”며 “그럼에도 풀과 나무, 곤충과 자연의 많은 생명들과 함께하는 삶은 경이로움의 연속이었다”고 밝혔다.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